

<번역 논문>

## 관련성 이론에 관하여<sup>1)</sup>

스티븐 패트모아(Stephen W. Pattemore)\*

이두희\*\*

### 행간 읽기

나는 1611년 성경(\*역자주: 제임스왕역 성경)의 등장을 둘러싸고 휘몰아쳤던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번역자들이 독자에게”라는 서문에서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해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가끔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으나, 때로는 지나간 시대의 안개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sup>2)</sup> 내가 거기에 나오는 문장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려운 점은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다. 사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바로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런 특별한 느낌이 그 본문의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번역자들은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이 잘 해내고도 “육을 먹은” 일을 말하기 위해 그 서문의 첫 부분에서 1500 단어를 할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서문에는 “...그들의 가슴에 달라붙은 이들로부터 생계 수단을 빼돌려서, 자기들 부동산에 대한 광기를 채우는 저 양부모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400년 전에 내 나라 말로 쓰인 문서를 읽는 것이 이 정도로 어렵다면, 낯선 문화 속에서 외국어로 쓰였고, 2000년 전의 맥락을 떠올려야 하는 성경을 읽어내는 일은 얼마나 더 망막한 일이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내가 정말

\* 저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활동하면서 세계성서공회 번역 자문 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SPattemore@biblesociety.org.nz.

\*\*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장, 신약학, dhlee@bskorea.or.kr.

1) Stephen W. Pattemore, “On the Relevance of Translation Theory”, *Review and Expositor* 108 (2011), 263-277.

2) 서문 전체를 인쇄하는 경우는 드물다. David G. Burke, ed., *Translation That Openeth the Window: Reflections of the History and Legacy of the King James Bible* (Atlanta: SBL, 2009), 219-242에서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다.

로 하려는 일은 행간을 읽는 것인데, 그것은 단어와 문장 사이의 틈새에 끼어 있는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다. 내가 확신하기로,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참뜻을 이해하고 싶다. 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 곧 2000여 년 동안 이 특별한 문서가 중심적이고 규범적이라고 주장해 온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경을 대하기 때문이다. 다른 문서들이 아니고 유독 이 문서들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 의미가 처음으로 소통될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문서들이 정경화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난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답변은 적어도 두 가지이다.

역사비평가는 ‘결여된 정보의 상당수는 내가 아주 열심히 찾지만 하면 접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역사가들과 고전학자들,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광대한 양의 “배경지식” 혹은 “맥락”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것이 간격을 메우는 데 실제로 조금 도움을 주기도 한다. 헨리 8세와 윌리엄 틴데일, 메리와 엘리자베스의 종교적 경쟁관계, 제임스 1세의 정치적 목적들, 햄튼 왕실 회의와 그 회의의 결과에 관해 알려진 모든 것을 읽는다면, 나는 확실히 더 나은 위치에서 그 서문의 뉘앙스와 드러나지 않은 전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 나의 문제는 각 상황에서 내가 ‘너무나 많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행간을 읽어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딱 어느 정도인가?

한편, 포스트모던 비평가는 ‘나에게 있는 것은 본문이 전부이고 그래서 나는 단지 그 본문에 익숙해져야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저자들과 그들이 전하고자 한 의미는 되살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소실되었고, 우리는 ‘기의(signification)’가 끝없이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해내야 한다. 나는 포스트모던 접근법으로부터 가치 있는 많은 것을 배우기는 했다. 그렇지만, 의미를 구성해 내는 일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비관론이 우리 인간의 상황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에는 결코 안주할 수 없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말과 몸짓과 본문을 통해 의미를 서로 소통한다. 그리고 나는 의도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보이는 것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미를 끈질기게 추적한다. 의사소통을 시작한 사람이 시공간적으로 나에게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가 확신하기로, ‘제임스왕역(Authorized Version) 서

문’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한 부분이 꽤 있다. 거리가 더 멀수록 단어 들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의미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오해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인정해주고 이해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제임스왕역의 번역자 서문은, 독자들이 단지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암시하거나 함축하는 바를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며 작성되었다. 저자들은 독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가정한다. 독자들이 손에 쥔 새로운 번역 성경의 본 내용을 읽기 전에 여러 쪽의 장황한 서문을 참아줄 정도로 독자들의 관심이 충분하다고 본다. 모든 면에서 서문은 ‘의사소통행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기록이다. 일군의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본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어 놓으려고 한다. 이때 독자들이 한 언어의 문법과 의미론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과 사건과 장소의 사회 문화적 전체 맥락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말은 서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개해 주고 있는 번역물에도 적용되고, 나아가서 모든 원천 본문들에도 적용된다. 제임스왕역은 17세기 영국의 번역자들과 그리스도인 대중 사이의 의사소통행위를 대변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의 의사소통행위 혹은 이전의 여러 많은 의사소통행위들을 충실히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사소통행위들에서 성서의 저자들은 독자들 스스로가 자리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독자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어 놓으려고 했다.

대부분의 현대 번역 이론들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있는데, 번역이란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자리한 구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행위라는 이해이다. 늘 그런 것은 아니다.

## 의사소통과 맥락

사람들은 종종 언어를 일종의 암호라고 생각한다. 내 마음 속의 생각을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단어와 문장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생성해내기 위해 (내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암호 책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해독해야만 한다. 의미는 본질적으로 본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의사소통의 기호 모델(code model of communication)’이 지난 세기 후반부를 지배했고,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가 자신의 “번역이론”을 정초시켰던 몇몇 이론적 기초 중의 하나를 이루었다.<sup>3)</sup> 이것은 “번역학

3) 다른 것들로는 촘스키(Noam Chomsky)의 작업에 기초한 문법의 “심층구조” 견해와 사전적

(Translation Studies)”이 일반 학문 분과로 떠오르기 전에 번역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적 틀이었다. 나이다가 번역을 이해한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본문의 ‘형식’과 본문의 ‘의미’가 나뉠 수 있다는 생각과, 적어도 성경 번역에서 ‘의미’의 효과적인 소통이 ‘형식’의 보존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다. 본문 자체에 내재한 보다 복잡한 차원(담화 구조: discourse structure)에 대한 이해와, 본문은 의미를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signs)로 기능한다는 이해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이전 이론이 의미 있게 재조정되기에 이르렀다.<sup>4)</sup> 그러나 언어학과 의사소통 이론의 발전은 그 이론적 토대를 허물기 시작했다. 특히, 기호 모델은 인간의 의사소통이 지니는 미세함과 힘을 설명해 내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진적으로, 의사소통 이론들은 맥락, 추론, 그리고 의미 구성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려해왔다. 의사소통에 대한 이러한 ‘화용론적’ 설명은 번역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쳐왔다. 한 예로, 윌트(Timothy Wilt)는 의사소통의 “여러 틀”을 은유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의사소통의 여러 틀은 언어, 조직, 그리고 사회문화적 상황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맥락의 하부구조들을 말하는데, 그 속에서 의사소통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를 협상해 간다.<sup>5)</sup> 노드(Christiane Nord)는 베르메르(Vermeer)의 기능주의 개념에 기초해서 ‘스코포스(skopos)’ 이론을 발전시켰다. 스코포스 이론에서 번역의 성공 여부는 후원자, 번역자, 수신자 공동체와 본문이 서로 협의한 이해관계에 비추어 측정된다.<sup>6)</sup>

## 의사소통에 있어서 관련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스페르버(Dan Sperber)와 윌슨(Deirdre Wilson)이 1986년에 제안하고,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 거트

---

의미론이 있다. Stephen W. Pattemore, “Framing Nida: The Relevance of Translation Theory in the United Bible Societies”, P. Noss, ed.,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Rome: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2007), 217-263을 보라.

4) E.g., Jan de Waard and Eugen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on* (Nashville: Thomas Nelson, 1986).

5) Timothy Wilt,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2003), 27-80.

6) Christiane Nord, *Translation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1997).

(Ernst-August Gutt)가 성경 번역에 도입한 ‘관련성 이론’이다.<sup>7)</sup>

관련성 이론의 근본적인 통찰은, 우리는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의도하는 것보다 조금만 말하지만, 우리가 뜻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능력이 있는 단어들을 선택한다. 사람으로 북적되는 방 안에서 내가 “Fire!”라고 외친다면, 누구나 그 말을 “집에 불이 났다. 즉시 건물을 떠나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것이다. 내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relevant) 않았을 것이다.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무엇보다도 주목을 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Fire!”라는 내 말을 “네 총의 방아쇠를 당겨라.”는 뜻으로 해석해낼 사람은 방 안에 몇 없을 것이다. 다른 맥락에서라면 “Fire!”라는 표현은 “방아쇠를 당겨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었지만 말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기호 체계도 “Fire!”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해주지는 못한다.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맥락’이다.

이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극단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요소들이, 말로 하는 것이든 글로 하는 것이든, 우리의 의사소통 관행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 분명 의도를 가진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뭔가를 우리가 듣게 될 때 (혹은 읽게 될 때) [명시적 의사소통: ostensive communication], 우리는 그것이 최대한 적절한 것이라 가정하고, 이해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끄는 맥락을 찾아 나선다. 그러한 첫 번째 맥락과 그 함축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을 멈춘다. 화재 시 비상출구로 달려가는 파티 손님들은, 내가 실제로는 “총을 쏘라.”는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에 관해 더 깊이 조사하는 일을 멈춘다. 화용론적 언어학이나 인지 심리학에서 따온 언어로 표현되는 이런 개념들이, 사람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틀을 관련성 이론에 제공해준다.

의미는 그것을 실어 나르는 메시지에 의해서는 충분히 결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구문론과 의미론의 모든 법칙과 수단이 동원되더라도, 발신자가 의미하는 내용이 수신자에게 다다르기 이전에, 광범위한 추론을 사용한 해석이 선행되어야지 발신자가 의도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본문은 그 의도된 맥락과 상호 작용해서 청중이 의미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내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의사소통이 적절한 것이 되는 길을 찾아낸다. 관련성 이론에서 맥락은 인지적 개념이다. 즉, 참이거나 아마도 참일 것이라고 우리가

7) Dan Sperber and Deirdre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Oxford: Blackwell, 1995); Ernst-August Gutt,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2nd ed. (Manchester: St. Jerome, 2000). 단초가 되는 이 두 작품은 이제 2판이 나와 있다.

주장하는 일련의 명제들이다. 그런 개념들 전체의 총합이 우리의 **인지 환경(cognitive environment)**이다. 맥락을 환기시킴으로써, 화자는 청자가 특정한 해석을 향해 가도록 내몰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대상이 되는 본문으로부터 추론되어 나온 개념들(ideas)은 **맥락의 산물(contextual effects)**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명시적인 것(explicatures)**일 수도 있고, **암시적인 것(implicatures)**일 수도 있다. 명시적인 것들은 본문 자체에서 나온 가정들로, 대명사, 일반 용어와 지시적 지소사를 참조한 결과들을 포함한다. 그것들은 애매한 용어들을 풀어주고, 청자의 기억으로부터 본문에 있는 개념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암시적인 것들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만 생성된다. 그것들은 본문과 맥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관련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소통되는 개념은 **맥락의 산물**이 많을수록 청자에게 더 적절한 것이 된다. 이해를 위한 정신적 **노력의 과정**을 적게 요구할수록 의사소통은 더 적절한 것이 된다. 청자가 이해과정을 밟고자 애쓸 가치가 있을 때, 의사소통은 **가장 적절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화자의 능력과 기호(嗜好)에 맞아떨어지게 생성될 수 있었을 가장 적절한 본문이다.<sup>8)</sup>

그래서 인간의 인지(cognition)는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맥락의 결과’ 사이에 균형을 잡는 행동 속에서 일어난다.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청증이 볼 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사람이 의사소통할 생각이 있고, 그것이 적절한(relevant) 것이기를 의도한다고 여겨질 때이다.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같은 가정 위에서 움직이고, 청증이 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의도된 의미에 도달하도록 자기들의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맥락이 선행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들이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메시지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처리됨에 따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기억한 대화의 이전 부분, 장기적으로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 그리고 메시지가 가리켜 보이는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에 접근함에 따라 그렇게 된다.

## 관련성 이론과 성경

관련성 이론은 주로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8) Dan Sperber and Deirdre Wilson, *Relevance*, 125.

발전되었다. 그러나 스펜브와 윌슨은 관련성 이론이 글로 된 의사소통과 문학적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했다.<sup>9)</sup> 관련성 이론이 문학에 사용된 비문학적 언어들을 설명해내는 능력은 언어의 **묘사적 사용(descriptive use)**과 **해석적 사용(interpretive use)** 사이의 구분에서 생겨난다.<sup>10)</sup> 전자에서, 발화(發話) [혹은 본문]는 사건의 실제 상태를 재현(再現)하기 위해 사용된다. 후자에서, 발화는 또 다른 재현(예를 들면, 발화나 생각)에 대한 화자의 해석을 재현한다. 간접화법, 은유, 직유, 반어는 모두 해석적 사용의 사례들이다. 시적 언어는 약한 암시적 연결 고리들(weak implicatures)을 다수 만들어냄으로써 작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sup>11)</sup> 저자가 의도한 강한 암시적 연결고리들과 길게 꼬리를 물며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맥락의 결과 (그것에 대해서는 청중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사이에 날카로운 구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관련성 이론은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 이론은 다양한 청중에 대한 문학적 본문의 섬세한 영향을 그리고 복합적 독서 현실을 설명해낸다. 따라서 관련성 이론이 문학작품을 다룰 때, 그것은 결정론적으로 저자 중심적인 접근도 아니고, 해체주의적으로 독자 중심적 접근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러한 접근법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성경은 특별한 종류의 문학적 본문이다.<sup>12)</sup> 따라서 관련성 이론은 첫째로, 원래적인 의사소통 행위들이 각각 저자와 공유한 인지적 환경 속에서 첫 번째 청중이 의사소통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둘째로는, 후대의 청중들이 자신들의 인지적 환경 속에서 일련의 다른 우선순위를 가정하면서, 어떻게 해서 서로 다른 읽기에 도달하는지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sup>13)</sup> 관련성 이론은 또한 본문 상호간의 인용(quotation)과 암시(allusion)의 역할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식을 제공한다.<sup>14)</sup>

9) Ibid., 75.

10) Ibid., 224-243.

11) 다수의 저자들이 관련성 이론을 문학에 훨씬 더 깊이 적용했다. Ian McKenzie, *Paradigms of Reading: Relevance Theory and Deconstruc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2); Adrian Pilkington, *Poetic Effects: A Relevance Theory Perspective* (Amsterdam: John Benjamins, 2000).

12)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재현하는 책인데, 의사소통의 저자와 맥락이 다수라는 점에서 (그 세부 사항 중 많은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현대 청중이 성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장구한 시간의 깊이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일부 사람들(독자들과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의 층이 여러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서이다. Stephen W. Pattemore, *Souls under the Altar: Relevance Theory and the Discourse Structure of Revelation*, UBS Monograph Series 9 (New York: UBS, 2003), 38-45를 보라.

13) Stephen W. Pattemore, *The People of God in the Apocalypse: Discourse, Structure, and Exegesis*, SNTSMS 128 (Cambridge: CUP, 2004), 28-31.

이때 성경 본문들은 자체 안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서, 포장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단순한 정보 꾸러미가 아니다. 이해에 있어서 맥락이 결정적이지만, 그 맥락은 본문에 대한 막연하고 무한한 정황이 아니다. 이해에 관련되는 맥락은, 특별히 저자와 청중이 공유하는 세계에 관한 가정들이다. 그 가정들은 단지 의미가 통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된다.

## 관련성과 성경 번역

마찬가지로 관련성 이론은, 원래 다른 언어로 다른 청중에게 주어진 본문을 재현한다고 주장하면서 번역자가 새로운 청중에게 한 본문을 제공할 때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둔다. 거트가 관련성 이론을 성경 번역에 적용한 선구자이다.<sup>14)</sup> “동등성” 개념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 거트는 제안하기를, 관련성 이론의 “묘사적 사용” 개념이 번역을 설명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고 했다. 번역은 의사소통의 이차적 행위이다. 번역은 더 이전의 일차적인 의사소통을 충실하게 재현한다고 주장한다. 청중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맥락을 이루는 요소들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번역자는 그런 본문을 새로운 청중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거트는 **직접(direct)** 번역이라고 묘사하는데, 더 최근에는 S-모드(s-mode) 번역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자극(stimulus)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청중이 스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맥락의 실마리들을 사용해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번역자는 그런 본문을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해석(interpretation)을 재현하는 것이므로 **간접(indirect)** 번역 혹은 I-모드(i-mode) 번역이다. 물론 분량이 긴 번역은 결코 배타적으로 S-모드 혹은 I-모드이지는 않고, 보통은 둘의 혼합 양상을 띤다. 그러나 거트가 한 일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번역자들 입장에서 번역을 읽는 독자들이 접근했으면 하고 바라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번역자들로 하여금 숙고하게 만든 것이다. 또 하나는, 그 결과 번역자들이 자기들의 성공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번역자들로 하여금 숙고하게 강제한 것이다.

14) Stephen W. Pattemore, “Relevance Theory, Intertextuality, and the Book of Revelation”, P. Noss, ed., *Current Trends in Scripture Translation*, UBS Bulletin 194/195 (Reading: UBS, 2002), 43-60.

15) Ernst-August Gutt, *Translation and Relevance; Relevance Theory: 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ranslation* (Dallas: SIL, 1992).

의사소통 사건의 관련성을 숙고하는 일은 번역자들에게 많은 제약을 부과한다. 원천 본문에서 ‘암시적’인 정보를 번역에서 얼마만큼 명시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전통적인 번역 관행은 이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인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 그리고 번역상의 수정에 대한 제안이나 모형들은 번역된 본문이 그 원래 맥락으로부터 표류하게 만들었다. 관련성 이론은 명시적인 것과 암시적인 것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경계를 재규정한다. 조금 심하게 단순화시켜보자면, 번역에서 명시적인 것들은 본문이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을 크게 왜곡시키지 않고서 단언하는 수준까지 고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요단을 요단 ‘강’이라고 한다든지, 대명사 ‘그’로 표현된 것을 예수님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암시적인 것의 경우에는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암시적인 것이 번역에서 단언될 때 그 자체로 새롭고 의도되지 않았던 암시적 의미를 끌어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번역에 있어서 “맥락의 일치(contextual consistency)”와 관련된다. (이것은 “사전적 일치[lexical consistency]”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번역상의 수정은 원래 맥락에서 접근 가능했던 차원 가운데 한 본성, 즉 본문 자체를 대폭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것은 융단(tapestry)에 짜 넣은 문양들을 모호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거나 왜곡시키게 된다.

영어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안할 때, 원천 언어에 나오는 한 낱말이 번역자로 하여금 몇 개의 동의어 사이에서 번역어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대일로 동등성을 지니는 단 하나의 번역어가 일관되게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문구의 동일성을 기묘하게 주장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제임스왕역 번역자들은 어떤 용어들의 경우에는 번역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일관성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장하고 누렸다.<sup>16)</sup>

그러나 ‘다양한 의미’를 가진 원천 언어의 낱말들은 보통 수용언어에서 한 단어로 번역될 ‘수 없다.’ 그것은 동등성을 지니는 원천언어와 수용언어의 상이한 의미 범위 때문이다. 나이다와 태버(Charles R. Taber)는 이런 생각을 “언어적 일치에 대한 맥락적 일치의 우선성”이라고 표현한다. “원천 언어에 나오는 한 낱말을 번역하기 위해 수용언어에서 바른 낱말을 선택하는 것은 언어적 일치의 고정된 체계보다 맥락에 더 의존한다.”<sup>17)</sup>

이것은 관련성 이론이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16) David G. Burke, *Translation That Openeth the Window*, 237-238.

17) Eugene A. Nid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69), 15-22. 인용된 부분은 17쪽에서 온 것이다.

다. 특정 항목에 대한 상호적 인지 환경의 구성요소로서 가지는 본문 자체 (그리고 본문이 암시하는 다른 본문들)의 중요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그것은 숨겨진 위험을 내포한다. 본문을 작성할 때 저자들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저자들이 스스로 접근 가능한 다른 맥락에서 특정 단어나 문구를 이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충분히 자각하면서 (그리고 상호 관련성을 알면서) 그 단어나 문구를 고른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다른 맥락들(동일한 본문에서 앞서 나온 부분들 혹은 떠오른 다른 본문들)은 단어나 문구의 새로운 사용을 해석하는 맥락의 일부이다. ‘심지어는, 의미론 학자가 볼 때, 그것들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번역자가 새로운 맥락에서 다른 낱말로 번역하기로 결정할 때, 이 맥락적 함의 망은 깨어지고, 번역된 본문의 해석은 원래 본문의 해석과 달라질 것이다.

## 번역에서 관련성의 사례들

관련성 이론의 영감을 받게 되면, 번역자들은 본문을 가공물(artefact)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매개물로 조사할 것이다. 첫째로, 번역자들은 ‘원저자와 원래 청중의 세계에서’ 관련성을 최적화해 줄 해석들을 찾고자 할 것이다. 이것은 본문의 분석뿐만 아니라, 소통되는 의미에 최적으로 기여하는 맥락의 분석과도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번역된 본문을 공들여 만들기 전에 번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청중이 원래 맥락의 전제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 도움이 어떻게 제공될 것인가? 번역된 본문에서 원래 맥락의 전제들을 명시적으로 만듦으로써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 맥락에 관한 메모, 지도, 단어설명, 소개 그리고 다른 도움 장치들을 사용해서 원래 맥락에 대한 통찰을 가지도록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는 관련성 이론이 번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몇몇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 고린도전서 10:7

μηδὲ εἰδωλόατραι γίνεσθε καθὼς τινες αὐτῶν, ὡσπερ γέγραπται,  
Ἐκάθισεν ὁ λαὸς φαγεῖν καὶ πίνειν καὶ ἀνέστησαν παίζειν.

**KJV:** Neither be ye idolaters, as *were* some of them; as it is written, The people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rose up to play.

**NRS:** Do not become idolaters as some of them did; as it is written, “The people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they rose up to play.”

**GNB:** nor to worship idols, as some of them did. As the scripture says, “The people sat down to a feast which turned into an orgy of drinking and sex.”

기록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현대 독자들은 “rose up to play(일어나서 뛰놀다/춤춘다)”라는 어구를 원래 의사소통 사건의 맥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정 하에서 이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번역자들은 그런 독자를 돕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멀리 가야 하는가? 번역자 안내서는 “출애굽기 32:6하반절로부터 인용된 부분에 대한 GNB의 번역은 생생한 풀어쓰기이다. 그런 의미가 그리스어에 암시되어 있는 것일 수 있지만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sup>18)</sup>는 사실을 분별력 있게 관찰하고 있다. GNB는 성적인 요소들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을, 원래 짝을 이루는 먹는 것과 함께 묶지 않고 놀이/성/춤과 한 묶음으로 재조정했다. 이것은 원문에 함축된 의미의 일부를 영리하게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원문으로부터 기껏해야 약한 정도로만 끌어낼 수 있는 (특히, 술 취해서 벌이는 성적 행동과 관련된) 훨씬 더 많은 함축적 의미를 그 안에 지니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0:18**

βλέπετε τὸν Ἰσραὴλ κατὰ σάρκα· οὐχ οἱ ἐσθίοντες τὰς θυσίας κοινωνοὶ τοῦ θυσιαστηρίου εἰσὶν;

**KJV:** Behold Israel after the flesh: are not they which eat of the sacrifices partakers of the altar?

**NRS:** Consider the people of Israel; are not those who eat the sacrifices partners in the altar?

**GNB:** Consider the people of Israel; those who eat what is offered in sacrifice share in the altar’s service to God.

NRS 번역자들은, 현대 청중들에게는 “κατὰ σάρκα”를 이해하기에 걸맞은 맥락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완전히 잘못된 가정들을 끌어들이기가 아주

---

18) Paul Ellingworth and Howard Hatton, *A Translator’s Handbook on Paul’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London; New York: UBS, 1985), 193.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옳다. 그러나 NRS조차도 독자들에게 많은 일을 남겨 두고 있다. “partners in the altar”는 무슨 뜻인가? 다소 평범하지 않은 이 구절은 맥락이 달라짐에 따라 폭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의 희생제의 제도를 알고 있다고 본다면, 의미는 분명했을 것이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제단에 희생으로 드려진 것을 함께 먹었다는 것을 포함해서 “바울이 잘 알려진 사실과 일반적인 생각에 호소하고 있다.”고 번역자 안내서는 논평한다.<sup>19)</sup> 그러나 현대 청중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GNB는 배경에 깔린 내용 일부를 명시화하기로 하는데, 그 자체로 모호하고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다른 일련의 함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점검해 본 소수 언어 번역의 하나를 그 최종 역본으로부터 역 번역해 보자면 “[partners in the altar]는 제단에서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로 풀어주었다. 이것은 GNB 번역에서 추론할 수 있는 암시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원문이 암시하는 바는 아니다. 결국 사람들과 사제들은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요한계시록 7:2-3<sup>20)</sup>**

『개역개정』: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sup>21)</sup>

하나님의 종들을 “인침”은 두루마리를 “인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번역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몇몇 다른 본문들 혹은 당시의 개념들이 제안되었다. (노예에 대한) 소유권 표시로서의 인침, 유월절(출 12장), 에스겔 9장, 그리고 세례 의식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출애굽기나 세례의 맥락에 연결할 직접적인 동기는 적어 보인다. 이 두 맥락은 원문의 맥락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이해를 위한 해결 과정에 들어가는 노력을 증가시킨다. 에스겔 9장은 원문의 맥락에 더 근접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제기한다. 노예 소유권과 인침(혹은 낙인)이라는 문화적 맥락은 쉽게 접근될 수 있고, 듣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고도 유의한 맥락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맥

19) Ibid., 200.

20) 이 장의 세부적 논의에 대해서는, Stephen W. Pattemore, *People of God*, 117-164를 보라.

21) [역자주] 원문에는 없지만, 독자의 편의를 위해 『개역개정』 본문을 실었습니다.

락은 바로 앞서 나오는 본문인 6장에서 인을 떼는(breaking) 내용이다. 동일한 용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어적이다. 여섯 개의 인을 ‘여는 것(opening)은’ 불순종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냈다. 그러나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인침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멈출 수 없는 계시가 정형어구(“그가 … 인을 열었을 때”)의 반복에 의해 표시되었을 때처럼,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침이 반복에 의해 강조된다(7:2, 3, 4, 5, 8). 두루마리의 인을 ‘해제함(unsealing)’이라는 배경에 비추어, 재앙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인치는’ 과정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는다.

GNB가 “하나님의 인으로 표시된(marked with God’s seal)”이라고 말함으로써 효과를 다소 흐리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영어 번역본들은 “인침”과 관련해서 이 가능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CEV는 이 장면 내내 “인침(sealing)”보다는 “표시함(marking)”이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맥락적 일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연관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아직 언급된 적이 없는 다른 표, 곧 짐승의 표(the mark of the beast)와 더 긴밀한 연결을 형성한다.

#### 요한계시록 21:1

Καὶ εἶδον οὐρανὸν καινὸν καὶ γῆν καινὴν. ὁ γὰρ πρῶτος οὐρανὸς καὶ ἡ πρώτη γῆ ἀπῆλθαν καὶ ἡ θάλασσα οὐκ ἔστιν ἔτι.

이 구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있는 땅이 파괴되고 새 땅에는 바다가 없는 것’을 암시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여 왔다. 그런데 관련성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해석과 번역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근접 맥락의 요소들을 찾도록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이해를 교정하도록 돕는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주의 깊게 분석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짧은 환상이(21:1-8) 바로 앞의 최후 심판 환상(20:11-15)과 긴밀히 연결되고, 따라서 후자가 전자의 직접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21:1)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은 20:11의 결과이다. 거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배우들이 무대에서 달아나듯이, 심판자 면전에서 달아난 것으로 보도된다. 이 근접 맥락에서는 ἀπῆλθαν(앞엘싼)이라는 단어가 ‘가버렸다, 떠났다’는 통상적 의미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sup>22)</sup> 옛 하늘

22) 실제로, ‘앞에르코마이’가 조금의 애매함도 없이 “존재하기를 멈추다”는 뜻으로 쓰인 경우는 없다.

과 땅은 단순히 장면에서 사라진 것이지 파괴된 것이 아니다. GNB와 CEV에서 제공되는 관주는 베드로후서 3:13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목한다. 아울러 베드로후서 3:12는 불에 의해 하늘이 소멸된다고 말한다. 이 관주 때문에 독자들은 요한계시록 21:1의 “지나갔다”를 그와 같은 뜻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 관주가 해석의 적절한 맥락으로 요한계시록 20:11을 지목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사라졌다(disappeared)”는 번역은 아마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그러나 “존재하기를 멈추었다”는 방향으로 번역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바다 부분이 없는 땅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혼동과 죽음의 힘이 끝났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읽게 된다. 20:13에 의하면, 죽음과 하데스와 더불어 바다는 죽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0:13을 참조하라는 관주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카오스”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보통의 현대 독자에게는, 각주에서 그 배경을 설명해주는 것 또한 필요할 수 있다.

관련성 이론은 지나친 처리 노력 없이 좋은 인지적 결과를 낳는 최적화된 관련성에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땅과 하늘의 파괴가 여기서 명시적으로 주장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그리고 독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5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구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강령의 결과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래되고 낡아서 이전 장면에서 무대로부터 달아났던 하늘과 땅은 이제 새롭게 되고 활기를 되찾아 되돌아온다.

## 관련성과 번역

성경을 고대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가 의사소통의 현대 이론들을 접목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그 목적은 원래의 맥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본문을 만들어서 새로운 청중이 원래의 사건에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논문의 시작 부분에서 내가 제기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가?

관련성 이론은 역사비평가와 포스트모던 비평가 양자 모두에게 평화제의를 하고 있다. 역사적 맥락이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관련성 이론은 역사비평가에게 확증해 준다. 서로 다른 청중은 자기들이 본

문에 가지고 들어오는 맥락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따라, 본문을 서로 다르게 읽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관련성 이론은 포스트모던 비평가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관련성 이론은 또한 각 그룹에게 더 엄격하게 도전을 제기한다. 역사 비평적 측면에서, 관련성 이론은 해석에 관련된 맥락에 제한을 두고, 해석자로 하여금 그 맥락을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도전한다. 포스트모던 측면에서, 관련성 이론은 초기의 지적 나태함에 도전을 가한다. 본문은 단지 내가 그러리라고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자와 저자의 맥락에 대한, 그 본문을 받아서 소중히 보존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는 저자이신 성령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의해 재현된 의사소통의 관련성(적절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또 번역자에게 있어서 관련성 이론은 번역의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에 자리한 새로운 청중에게 의미를 소통하기 위한 기술과 전략을 적용할 때 번역자가 취해야 할 관점을 제공한다. 주석 방법들, 동등성을 찾는 기술들, 필수적인 맥락적 전제를 제시하는 전략들, 사실 번역 프로젝트가 가진 전체적인 목적과 기대는 더 이상 문서 상에서 수행되는 과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원래의 의사소통 사건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의사소통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때 우리를 제약하는 것은 단지 언어적인 기준들이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위대한 의사소통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다.

제임스왕역 번역자들이 주장했듯이, 번역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sup>23)</sup>

#### <주제어>(Keywords)

의미, 성경 번역, 의사소통, 관련성 이론, 맥락.

meaning, Bible Translation, communication, Relevance Theory, context.

(투고 일자: 2017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7년 2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4월 26일)

23) David G. Burke, *Translation That Openeth the Window*, 231.

<참고문헌>(References)

- Burke, David G., ed., *Translation That Openeth the Window: Reflections of the History and Legacy of the King James Bible*, Atlanta: SBL, 2009.
- de Waard, Jan and Nida, Eugene 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on*, Nashville: Thomas Nelson, 1986.
- Ellingworth, Paul and Hatton, Howard, *A Translator's Handbook on Paul'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London; New York: UBS, 1985.
- Gutt, Ernst-August, *Relevance Theory: 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ranslation*, Dallas: SIL, 1992.
- Gutt, Ernst-August,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2nd ed., Manchester: St. Jerome, 2000.
- McKenzie, Ian, *Paradigms of Reading: Relevance Theory and Deconstruc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2.
- Nida, Eugene A. and Taber, Charles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69.
- Nord, Christiane, *Translation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1997.
- Pattemore, Stephen W., "Relevance Theory, Intertextuality, and the Book of Revelation", P. Noss, ed., *Current Trends in Scripture Translation*, UBS Bulletin 194/195, Reading: UBS, 2002, 43-60.
- Pattemore, Stephen W., *Souls under the Altar: Relevance Theory and the Discourse Structure of Revelation*, UBS Monograph Series 9, New York: UBS, 2003.
- Pattemore, Stephen W., *The People of God in the Apocalypse: Discourse, Structure, and Exegesis*, SNTSMS 128, Cambridge: CUP, 2004.
- Pattemore, Stephen W., "Framing Nida: The Relevance of Translation Theory in the United Bible Societies", P. Noss, ed.,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Rome: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2007, 217-263.
- Pilkington, Adrian, *Poetic Effects: A Relevance Theory Perspective*, Amsterdam: John Benjamins, 2000.
- Sperber, Dan and Wilson, Deirdre,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Oxford: Blackwell, 1995.
- Wilt, Timothy,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2003.

<초록>

## 관련성 이론에 관하여

최근 성경 번역은 의사소통 이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의사소통 이론은 언어의 화용론적 측면, 즉 구체적인 맥락에서 언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경 번역자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맥락이 중요하다. 하나는 본문이 원래 전달되었던 당시의 맥락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그 본문을 읽는 청중의 맥락이다.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 RT)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말한 내용은 우리가 뜻하는 내용의 실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말한 내용은 그것을 통해 전달하고자 의도했던 사상이 생겨난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관련성 이론은 의미의 생성과 수용에서 맥락이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관련성 이론에 연관된 쟁점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성 이론의 중요 개념 몇 개를 개관한 다음, 관련성의 고려가 번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할 것이다.